

죽음으로 8km 운하 뚫다

기요하라 타헤에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해 8개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고질적 물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이유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일보 ‘이웃’은 17~18세기 일본 치산·치수 영웅 세 사람의 개발 사례를 통해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해왔다. 인력만으로 대자연의 흐름을 바꾼 역사(役事)는 200~300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의 순환을 반복하며 그 공과를 후대가 안으며 살고 있다. 그 현장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관리와 공유 주민과 대화 종교계는 설득... 대역사 기초공사는 ‘소통’



기요하라 타헤에 동상



신년기획 **하나님과 자연**
일본 치산치수 영웅에게 길을 묻다

- 글 쓰는 순서
- ① 전 재산 털어 간척사업 - 오오카지 시치베에
- ② 죽음으로 8km 운하 뚫다 - 기요하라 타헤에
- ③ 42년 망치 하나로 강을 바꾸다 - 스토우 아헤에

된 보(沢)를 따라 상류로 거스르는 운하길은 이제 한가한 강물일 뿐이다. 그러나 한때 이 운하는 이즈모 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대도시 오사카, 에도 등으로 운송하던 중요한 수운로였다. “에도시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기다마에센(北前船)이 있었어요. 이즈모 평야의 쌀도 기다마에센을 통해 오사카, 에도, 홋카이도 등으로 운송했습니다. 한테 사다운하가 생기면서 이 운송선이 이즈모반도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됐으니 물류혁명을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18세기만 하더라도 수운 수단이 가장 효과적이었지요.” 이즈모 지방 역사가 사사키 다케오씨가 보를 따라 걸으며 설명했다. 운하가 개발되기 전에는 우측 해안선을 따라 계속가다 사카미미나토항(상단 지도 참조)을 거쳐 나카우미와 신지호수로 돌아와야 했다. 이 운송로 길이가 대략 100km. 하지만 사다운하가 완공되면 10분의 1로 줄었다. 그러나 당시 이즈모 농민에선 운하가 절박한 문제가 아니었다. 큰 비가 왔다 하면 곡창지대가 물에 잠기고 마는 홍수가 당면한 현실이었다.

유량 결실 농민 위해 나서다 사다운하 개발 과정은 관(官) 농민 종교계 등이 얽힌 난재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제의 시대라고 해도 농민의 뜻을 막무가내로 거스를 수 없었으며 종교계가 자연 훼손을 보는 시각에 등을 돌릴 수 없었다. 또 관 내부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은 공유하나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예산 문제와 구성원 간 파워게임으로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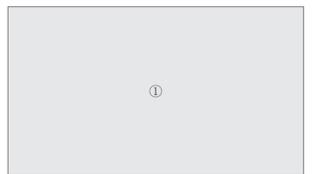
홍수피해로 유량결실 농민 목적 10대 배 치수 의지 70대에 실천 연인원 7만명 작업 3년만에 완공

기요하라 타헤에(1711~1787)는 일본 전국시대의 명장 도쿠가와와 이에야스처럼 울지 않는 새를 ‘울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로 운하를 개발했다. 10대 때부터 홍수 피해로 유량 결실하는 농민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치수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76세에 운하 개통을 목전에 두고 숨을 거두었다. 그가 완공한 운하의 길이는 길이 8km, 폭 36m이다. 지난 성탄절 통해 바다가 펼쳐진 일본 마쓰에시 에쿠모항. 내륙 신지코(湖)에서 흘러 내려온 강물이 바다에 닿는 작은 포구다. 거센 눈보라와 강풍으로 몸 가누기가 힘들었다. 운하에 정박한 요트마저 요동친다. 잘 정비

재정 이유, 치수 외면하는 막부 1639년 대홍수. 전 재산을 털어 간척사업을 벌였던 오오카지 시치베에가 18세에 겪었던 물난리였다. 홍수 직후 마쓰에번은 텐진강을 만들어 치수에 힘썼으나 수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험한 산골짜기를 따라 물이 일시에 신지코로 흘러들면 삼시간에 평지가 물에 잠겼다. 평야는 물론 시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기요하라 타헤에는 농사꾼의 아들이었다. 무사적 기질을 갖춘 데다 총명했다. 그는 10세 무렵 우연히 마쓰에번의 무사 아오누마 로크로 우우자에몬이란 인물을 만나면서 물리가 트이게 된다. 요즘으로 치자면 고시를 목표로 한 꿈을 갖게 되는 셈인데 그 말만 무사의 꿈을 15세에 이룬다. 1721년과 22년 홍수로 신지코가 넘쳐 유량민이 발생한다. 번의 말단이 된 그는 농민을 위해 무엇이 해결해야 할지 결심을 하게 된다. 아오누마에게 “왜 번은 홍수가 나지 않게 고치지 않느냐”고 따지던 당돌한 인물이기도 했다. 1732년 일본 열도를 강타한 자연재해는 식량난을 가져왔다. 이즈모반도 역시 대홍수로 폐허가 됐다. 얼린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떼까지 극성을 부려 일본 전국에서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이때 기아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휴까지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청년 타헤에는 신지호수의 수위를 내리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수리 시설 공사로 농민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와 후견인 아오누마가 죽자 치수의 꿈이 흔들리게 된다. 그가 공부로서 뜻을 펼치게 한 것은 어머니다. 장남이었던 그가 가업을 잇지 않는 것에 실망치 않고 “신지 호수의 홍수를 꼭 막아 달라”고 독려했다. 타헤에는 번의 공복으로 출세해야 치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47세에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정식 무사가 됐고 10년 뒤 치안담당, 행사관리담당, 노사담당, 감사담당 등을 거치게 된다. “1784년 홍수는 마쓰에성 밑까지 차오르는 위협적인 것이었어요. 재정을 이유로 나 몰라라 하던 번의 관리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타헤에의 운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0대 때의 계획이 70대가 되어야 실천할 기회가 생긴 거죠.”

당시엔 쌀 생산증가등 이익 창출 사다운하 개통 올해로 223년 맞아 운하 기능 상실 요트장 정도만 활기 사사키 다케오씨는 “홍수로 먹을 것이 없는데 쌀도 세수를 건어 왔던 번의 경직성에서 알 수 있듯 타헤에의 제안 역시 영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묵살 당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타헤에를 견제하려는 정치 세력은 지난 10여년간 홍수 피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고속 승진을 거듭하던 그를 견제했다. 한테 이 무렵 대를 이은 젊은 성주 하마사토가 치수 무대책을 꾸짖자 실권을 쥔 반대파가 어쩔 수 없이 타헤에를 알선시킨다. 가혹한 세금 등에 따른 농민 반란이 그 배경이었다.



①바다 입구의 사다운하. 좌우로 고깃배가 늘어서 있다. ②운하가 쓸모 없게 되자 요트계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③신지코(湖)의 석양. ④마쓰에성. ⑤방파했던 신지코의 오늘

도가 드러난 셈이다. 타헤에 나이 73세 되던 해 공사가 시작됐다. 10개 마을에 걸쳐 수용 토지가 발생했고 당연히 농민이 반발했다. 공사 현장에 울타리를 들었으나 농민이 번번이 뿔이 버렸다. 상명하복이 얽힌 일본 막부시대라는 걸 감안하면 그 반발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농민들은 눈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타헤에는 이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 밤에 몰래 울타리와 측량 공사에 나서 일을 진행했다. 늘지대엔 밤에만 나오는 게 있었는데 오늘날 ‘타헤에 게’라고 부르는 이유다. 타헤에가 넘어야 할 또 다른 난제는 종교계였다. 사다신사가 반대하고 나선 것. 신사 정문 앞으로 운하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더구나 몸을 맑게 한다는 연못 ‘미즈미이케’가 개발 사업으로 마르게 됐으니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만난 사다신사 책임자(宮司) 아사야마 요시쿠니(79)씨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와의 마찰은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타헤에의 경우 신사를 수백 번 찾아 농민을 위한 개발임을 강조하고, 성소(미즈미이케)를 대신할 곳을 만들어 정성을 기울였어요.

사업의 정당성과 진심이 우선되니 신사가 양보했다고 합니다.” 타헤에는 또 사찰 측 설득을 위해 매일 바닷가에서 몸을 씻고 사찰까지 2km를 걸어와기도를 드렸다. 데라이 도시오(향토사학자)씨는 “18세기 말 토목 기술로 늪지대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실패를 거듭하며 기술 축적을 해 나갔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다강(운하)은 그래서 완공됐다. 수십 명의 인부가 늘 공사 과정에서 죽었고, 개통 직전 타헤에 역시 생을 마감했다. 26일 다시 둘러본 사다강 일원. 운하는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한국의 군 단위가 그렇듯이 이곳도 친수환경을 조성했어도 인구 감소로 이용할 사람이 없다. 요트계류장 정도나 활기가 있을 뿐이다. 200여년 전 지금과 같이 생태계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쌀 생산 증가와 치수가 목표였다. 사다 운하는 당대에 이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이산이수(移山移水)가 가능한 현대의 인공자연은 국가가 관리능력을 상실할 때 홍물과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jhjeon@kmbi.co.kr

취재 지원: 일본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日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에 감사장

국민일보 조민제(사진 가운데) 대표이사 사장이 일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고마츠 아키오(66·왼쪽) 이사장으로부터 자연개발 보도와 관련해 감사장을 받았다.

고마츠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1층에서 열린 국민가족 수호예배에 참석해 조민제 사장에게 “국민일보 섹션 ‘이웃’이 지난 1월 일본 이즈모 반도의 치산·치수 영웅 3인의 업적에 대해 ‘하나님과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은 인간자연과학연구소 김현철(78·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고문이 배석했다.

지난 1월 6일, 13일, 20일 등 3회에 걸쳐 보도된 기획물 ‘하나님과 자연’은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개발 문제에 대해 창조질서 시각으로 해답을 얻고자 일본 시마네현(이즈모)에서 취재가 이뤄졌으며, 인간자연과학연구소가 취재를 지원했다. 일본 치산·치수 영웅 오오카지 시치베에(1621~1689) 등 3인은 운하, 간척 등의 개발 사업을 국민의 편에서 추진했다. 본보는 이들이 개발한 300여년 후 자연환경의 장단점을 집중 보도했다.

조국현 기자

命をかけて8kmの運河をつくる

清原太兵衛

4大江開発事業に対して8つの教団協議体である韓国キリスト教教会協議会(NCCK)は事業中断を促した。その一方で、保守志向の韓国キリスト教総連合会は「長引く水問題の解決と地域活性化」を理由に支持する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れについて国民日報「イウツ(隣り)」は17-18世紀の日本における治水の英雄、三人の開発事例を通じてケーススタディ(Case study)を試み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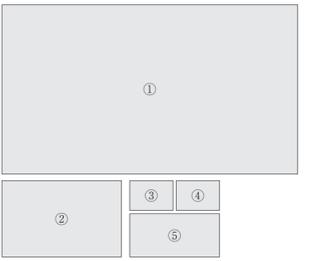
人力だけで大自然の流れを変えた事業は200-300年が過ぎた今も生態の循環を繰り返して、その功績を後代が抱きながら暮らしている。その現場を3回にわたって連載する。

住民、藩、寺社…利害が複雑にからみあう難題を克服、歴史的偉業を達成



新年企画 神と自然
日本 治山治水 英雄に 道をたずねて

- 記事掲載順
- ①全財産をかけ干拓作業 大槻七兵衛
 - ②命をかけて8kmの運河をつくる 清原太兵衛
 - ③42年間金づち一つで川の流れをかえる 周藤彌兵衛



①佐陀川の河口。左右に漁船が並んでいる。②運河に使われなくなり、ヨット場に活用されている。③六道湖の夕日 ④松江城⑤かつて氾濫した六道湖の今日。



清原太兵衛 銅像



出雲(日本) = 記事 全正熙記者、写真 尹汝弘専任記者

日本の島根県、島根半島の佐陀川が開通してから今年で223年目だ。私たちの東海(日本海)に面している佐陀川は、日本幕府時代の一つの藩の治水の歴史であるといえる。18世紀後半のその普請は土木・建設技術が当時とは格段に差がある現代と、単純に比較することは不可能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だが、自然は、開発後も後代が子孫孫に受け継いで、生の基盤にするという点で「その後200余年」はケーススタディ(Case study)とするのに十分値する。

聖書で神様は地を人格化してその創造力を地に委任(窓1:12)した。生態秩序の観点で見ると、地は生産と生命の主体だ。しかし技術文明の発展は気候温暖化と生態秩序の攪乱を生じた。「種を殖す植物と、実を作る木」は人間の生命維持のための神様の思いやりであるが、これを地を通じてどのようにまく治めるのが地球共同体の重要な課題になった。

ここに世界キリスト教は人間救済中心の神学から、生態系全体を救済の対象と見るパラダイムの転換をはかった。クリスチャンだけではなく他の宗教人でもさえ4大江開発に対して深く悩むことは、人間と自然の間にある「宿題」のためである。

流浪の民のために先頭に立つ

佐陀川の開発過程は、官、農民、宗教界などが関わる難題を、どのように賢く克服するかという点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専制の時代と言っても農民の意に頑なにあらがうことはできなかったし、宗教界が自然破壊を見る目に背を向け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また官の内部でも事業の正当性は共有するが、実際に実務に入って行けば予算と構成員間のパワーゲームで、目的を果たすことが簡単ではなくなった。

清原太兵衛(1711-1787)は日本戦国時代の名将徳川家康のように、「鳴かない鳥を、鳴くまで忍耐して」運河を開発した。10代の時から洪水被害のために流浪乞食をする農民の惨めな現実を見ながら、治水の意志を固めた。そして76歳で運河開通を目前にして死んだ。彼が完工した運河の長さは8km、幅は36mだ。

洪水被害で、流浪の民となった農民を目撃し、10代の時に治水の意志を固め…70代で実践、工具7万人、3年で完工

先般のクリスマスの日、東海(日本海)が広がる日本、松江市の恵曇港。内陸の六道湖から流れ出た川水が海につながる小さな港だ。荒々しい吹雪と強風で姿勢を保つのも大

変だった。運河に停泊したヨットも揺れる。よく整備された堰に沿って上流に続く運河筋は、今は穏やかな川水を湛えるだけだ。

しかし当時のこの運河は、出雲平野で生産された米を大都市である大阪、江戸などへ運送した重要な水運路だった。

「江戸時代、海岸線に沿って移動する北前船がありました。出雲平野の米も北前船を通じて大阪、江戸、北海道などに運送されました。佐陀川が出来たこの運送船が島根半島の内陸に深く入りこんで行くことになり、物流革命をもたらすようになったのですね。18世紀は水運手段が一番効果的だったのです」

出雲地方の歴史家である佐々木武男氏が堰に沿って歩きながら説明した。運河が開発される前には、船は右側にある島根半島の海岸線に沿って行き境港港(上端地図参照)を経て中海と六道湖に入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の運送路の長さがおよそ100km。佐陀川が完工してそれが10分の1になった。

しかし当時、出雲の農民にとっては運河が切迫した問題ではなかった。大雨が降ると穀倉地帯が水に浸ってしまう洪水が直面する現実だった。

財政を理由に、治水から目をそらす藩

1639年の大洪水。全財産をはたいて干拓事業をした大槻七兵衛が18歳の時に経験した水騒動だった。洪水直後の松江藩は天神川を造って治水に力を尽くしたが、水害を防ぐに力不足だった。険しい谷に沿って水が一斉に六道湖に流れ込めば一瞬にして平地が水に浸った。平野はもちろん、市街地も例外ではなかった。

清原太兵衛は農家の息子だった。武士的な気質を備えたいえに聡明だった。彼は10歳の頃、偶然に松江藩の武士、青沼六郎左衛門という人物に会い、物のことわりが分かるようになる。今で言う和国家試験にあたるが、それを目標にした夢を持つようになる。彼はその末端の武士となる夢を15歳で成し遂げる。

1721年と22年、洪水で六道湖があふれて流民が発生する。下級藩士になった彼は農民のために何とか解決しようと決心する。青沼に「どうして藩は洪水が起らないようにしないのか」と問い詰めるような唐突な面もある人物でもあった。

1732年、日本列島を強打した自然災害は食糧難をもたらした。島根半島もやはり大洪水で廃墟になった。泣き面に蜂でイナゴの大群の被害もあって、日本全国で数十万の餓

死者が発生した。この時、飢餓に苦しむ人々が土まて食べたという記録もある。

青年太兵衛は、六道湖の水位を下げれば洪水被害を防ぐことができると考えた。水利施設工事で農民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と確信するようになる。しかし父と後見人青沼が死ぬと治水の夢が難しくなる。彼に公僕としての意味を教えたのは彼の母だ。長男だった彼が家業を引き継がないことに落胆せずに、「六道湖の洪水を必ず防いでほしい」と励ました。

太兵衛は藩の公僕として、出世すれば治水事業ができると思った。そして47歳にして刀を腰にさして道を歩くことができる正式な武士になり、10年後、治安担当、行管理担当、人事担当、監査担当などをするようになる。

「1784年の洪水は松江城の下まで水位が上がってくる脅威的なものでした。財政を理由にして関心を持たずにいた藩の役人たちが、その時になってようやく気づいて太兵衛の運河提案を受け入れます。10代の時の計画が70代になってようやく実践する機会ができたのです」

当時は米生産増加など利益を創出した佐陀川。開通から223年、運河としては使われないが、ヨットハーバーが賑わう

佐々木武男氏によると「洪水で食べ物がないのに米で税収を集めて来た藩の硬直性からみても分かるように、太兵衛の提案も領主にとって、即座に必要ではないので黙殺されていた」というのだ。そのうえ太兵衛を牽制しようとする政治勢力は、直近の10年あまり洪水被害がないという点をあげて、昇進に次ぐ昇進でスピード出世した彼を阻害した。この頃、代を引き継いだ若い城主、治郷が藩の治水の無対策を叱ると、実権を握っていた反対派が仕方なく太兵衛に謁見させた。苛酷な税金などによる農民反乱がその背景にあった。

藩主は「金になる河川開発」と見た

太兵衛は城主に多久川と忠太夫川の源流を貫通して運河を造ることを提案する。まるで洛東江と漢江を連結して運河を造ることと同じ脈絡だ。洪水被害予防、沼地干拓、旅客輸送、農産物及び海産物運送のような多目的な開発で乾くことになったので、正面衝突しかなかった。

この日に会った佐太神社の宮司、朝山芳園氏(79)が話した。「宗教との摩擦はその解決が簡単なもので

と、城主とは計算が違った。運河を開発して船に通行料をとることで、藩の永久的収入になるということが明確になると全面支援に出た。国の公共事業の本当の意図が現われたわけだ。

太兵衛が73歳になった年に工事が始まった。10箇所の村にわたって土地収容が発生し、当然農民が反発した。工事現場に垣根をつくったが、農民がいつも取り除いてしまふ。上司の命令服従に厳しい日本の幕府時代を考えば、その反発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分かるだろう。農民たちは田で保証すると言っても、信じられないと言った。

太兵衛はそこで正面から対立しない。夜に密かに垣根づくりと測量工事に出て仕事を進めた。沼地に夜にだけ出てくる蟹を今日「太兵衛蟹」と呼ぶのはそのためだ。太兵衛が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他の難題は宗教界だった。佐太神社が反対した。神社正門前に運河があったからだ。その上、身を清めるといふ池「身澄ヶ池(みすみがいけ)」が開発事業で乾くことになったので、正面衝突しかなかった。

この日に会った佐太神社の宮司、朝山芳園氏(79)が話した。「宗教との摩擦はその解決が簡単なもので

はないです。太兵衛の場合、神社を数百回訪ねて来て、農民のための開発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 聖所「身澄ヶ池」の代わりとなる所をつくり誠意を尽くしたのですよ。事業の正当性と誠意が優って、神社が譲歩したといえます」

太兵衛はまた寺への説得のために毎日、海辺で身を洗って寺まで2kmを歩き祈りを捧げた。寺井敏夫氏(作家)は「18世紀末、土木技術で沼地に運河を建設するのは不可能な事だったが、失敗を繰り返して技術の蓄積を繰り返したから、成功することができた」と話した。

佐陀川(運河)はそれで完工した。数十人の人手が沼地工事過程で死に、開通直前に太兵衛も、一生を終えた。

26日、再び見た佐太川の一帯。運河は機能を失ってから長い。韓国の地方もそうであるように、こちらも親水環境を造成しても人口減少で利用する人がいない。ヨット繋留場くらいが活気があるだけだ。

200余年前、今のように生態系問題は考慮されなかったはずだ。ただ米増産と治水が目標だった。佐陀川は当代に利益を創出した。しかし移山移水が可能な現代の人工自然

は、国家が管理能力を喪失する時、再び凶悪な面を現し、災難をもたらす可能性も考えなければならぬだろう。

jheon@kmb.co.kr

取材支援：
日本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
翻訳 金有辰
監修 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

(財)人間自然科学研究所、国民日報趙受濟社長に感謝状



国民日報 趙受濟(チョミンジェ、写真中央)代表取締役社長が、日本人間自然科学研究所小松昭夫(66・左側)理事長から、自然開発報道に関して感謝状を受けた。

小松理事長は16日ソウル・汝矣島の国民日報ビル11階で開かれた“国民家族”の水曜礼拝に参加して、趙受濟社長に国民日報セクション・イウツ(隣り)が去る1月、日本島根半島の治山治水の英雄三人の業績に対して、「神と自然」という観点で報道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光栄に思う」と、感謝状を授与した。授与式には人間自然科学研究所の金顯哲(キムヒョンチョル、78・前放送委員会企画室長)顧問が同席した。

去る1月6日、13日、20日の3回にわたって報道された企画‘神と自然’は、議論を起こしている4大河川開発問題に対して「創造」「秩序」「視覚」で解答を求めようと日本島根県(出雲)で取材が行われ、人間自然科学研究所が取材を支援した。日本治山治水の英雄3人は運河、干拓などの開発事業を国民として推進した。この報道は彼らによる開発から300年あまりを経て、自然環境に及ぼした長所短所を集中報道した。

チョ・グッヒョン記者